



2022.11.28.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58호

#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삶의질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11. 28.

Vol. 58

ISSN 2733-8258

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삶의질그룹장 민보경

### 요약

#### I. 연구의 필요성

#### II. 청년의 공간적 분포

#### III. 청년의 주거 이동 패턴

#### IV. 청년의 주거 이동 사유

#### V. 결론

### 참고문헌

## • 청년의 거주 공간과 로컬 장소의 선택은 청년 인구층의 삶의 질 측면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 최근 지방에서의 청년 유출은 지방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의 주요 원인
- 본 연구는 청년은 어느 지역으로, 왜 이동하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 전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 청년층(20-30대)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부천시, 화성시 등으로 확인

- 20-24세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25-29세는 서울 관악구, 30-34세와 35-39세는 경기도 화성시에 가장 많이 분포
- 주민 중 20대와 30대 청년층의 비중은 사설학원 수, 재정자립도, 교원1인당 학생수,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녹지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일부 변수들과의 상관성 확인

## • 시도 간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체인구의 시도간 이동 규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청년 인구이동은 비교적 활발하며 수도권 지향성 확인

-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 2020년의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이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이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경우 지방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수도권 지향성 확인
- 수도권 전입 청년 가구의 2011년과 2021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 과거에 비해 20-24세의 수도권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 기준 수도권 이동이 가장 많은 청년층은 25-29세
-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이 대학진학과 대학졸업 후 취업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취업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청년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임과 동시에 오늘날 당면한 지방의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 • 청년층의 주요 이동 사유는 '직업'과 '주택'이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지역 배치와 주거 지원 정책 필요

-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단순히 진학 뿐 아니라 취업과 정착까지 염두에 둔 결과라고 상정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촉진하는 요인일 수 있음
- 일자리가 많은 지역, 역세권 등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주택이나 민간임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 있음

# I. 연구의 필요성

## 청년의 거주 공간 선택과 지역 이동의 의미

- **청년의 거주 공간과 로컬 장소의 선택은 청년 인구층의 삶의 질 측면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 최근 청년의 팍팍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환경, 교육 등 청년이 살아가기 위한 정주여건에 대한 이해 필요
  - 지역에서의 청년의 유입과 유출은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변화와 관련되어 지역의 성장과 쇠퇴에 영향 초래
- **최근 지방에서의 청년 유출은 지역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지방의 위기적 상황에서 청년의 거주 이동은 지역인구의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를 동시에 가져오게 하며 유입된 청년은 장기간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성 가짐(송용창·김민곤, 2016)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지방인구의 위기는 사회적 관심사이며 국가적 의제로 부상
- **인구이동은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현상인 동시에 사회현상이므로 청년의 인구이동 분석을 통해 청년과 지역의 문제 이해 가능**
  - 인구이동은 전출지역의 압출요인(pushing factor)과 전입지역의 흡인요인(pulling factor)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나타남(이정희 외, 2017)
  - 청년의 주요 전출지역과 전입지역을 살펴봄으로서 이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매력 차이를 이해하고, 청년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주 지역 선택 요인 파악

## 연구 질문: 청년은 어디로, 왜 이동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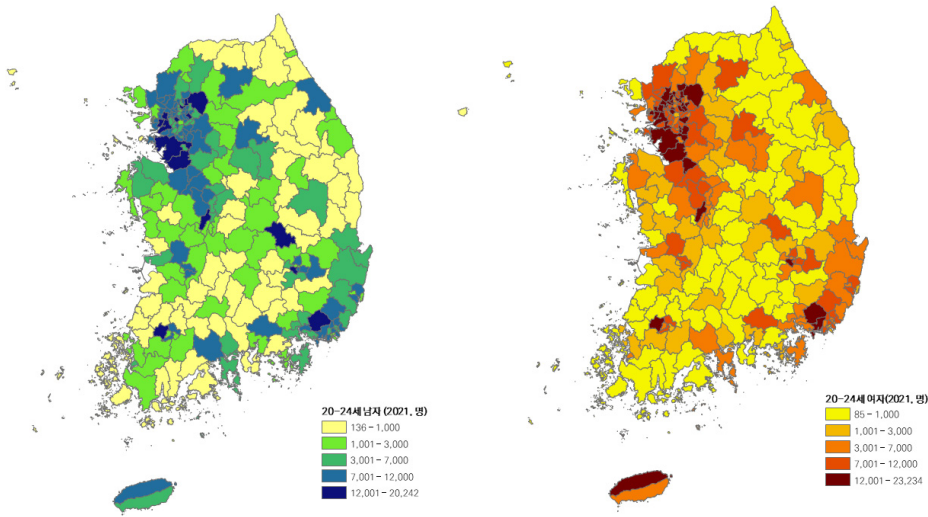
- **청년은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살고 있을까? 청년은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들은 왜 이동하는가? 연령별 차이가 나타날까? 남성과 여성의 이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까?**
  - 인구이동의 전통적 모델에 따르면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은 두 지역간 소득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고 설명(Lewis, 1954; Todaro, 1969)
  - 최근에는 주거비용(천상현 외 2014; 김리영, 2019), 주거여건(박부명·김성아, 2020), 교육여건(권오규·마강래, 2012; 오은열·문채, 2016; 송용창·김민곤, 2016), 지역에서의 쾌적함과 즐거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메니티(김현우·강명구, 2020), 지역의 매력도(엄창욱 외, 2018) 등에 따라 인구이동이 발생함을 확인
- **본 연구는 청년 인구 이동과 관련된 요인과 거주지역의 선택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 성별 특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함**
  - 분석결과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역의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II. 청년의 공간적 분포

### 연령별 지역 분포

- 청년의 공간분포를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1) 자료<sup>1</sup>를 활용하여 시군구(행정구)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
  - 청년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으로 구분하고 연령대별로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지역 분포 고찰
- 20-24세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그림 1 참고)은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으로 나타남
  - 20-24세 남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 부천시(20,242명)였으며, 그 밖에 경기 화성시(18,959명), 남양주시(16,587명), 대구 달서구(16,354명), 대전 서구(15,393명), 대구 북구(15,094명), 경남 김해시(14,467명), 경기 평택시(14,438명), 서울 관악구(14,384명) 순으로 분포
  - 20-24세의 여성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부천시(23,234명)이며, 경기 화성시(20,853명), 서울 관악구(20,219명), 서울 성북구(18,724명), 경기 남양주시(18,698명), 서울 송파구(17,948명), 대구 달서구(17,506명), 서울 노원구(17,287명), 대전 서구(17,261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20-24세 남녀 인구 분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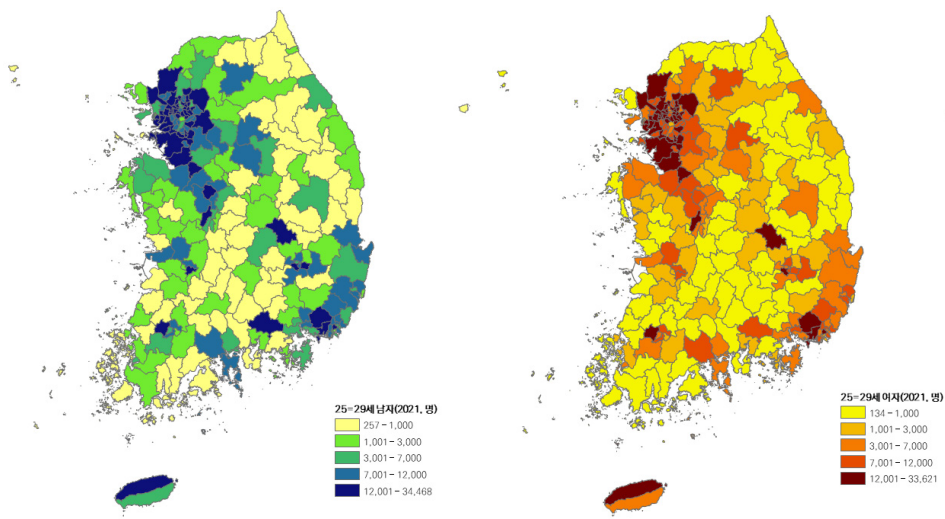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sup>1</sup> 분석대상의 자료는 행정구 단위로 제공된 인구통계로 일반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며 집단가구, 특별조사구(군인 등), 외국인 가구는 제외한 것으로 다만 내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원으로 집계

□ **25-29세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 하는 지역(그림 2 참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서울 관악구**

- 남성의 경우 서울 관악구(34,468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경기 화성시(31,971명), 부천시(30,943명), 평택시(22,935명), 서울 강서구(22,822명), 송파구(22,689명), 남양주시(20,958명), 대전 서구(19,772명), 대구 달서구(19,769명), 경기 시흥시(19,539명) 등에 많이 거주
- 여성의 경우, 서울 관악구(33,621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경기 부천시(29,099명), 서울 강서구(28,022명), 송파구(26,536명), 경기 화성시(26,043명), 남양주시(19,698명), 서울 영등포구(19,218명), 마포구(19,145명), 강남구(19,137명) 순

[그림 2] 25-29세 남녀 인구 분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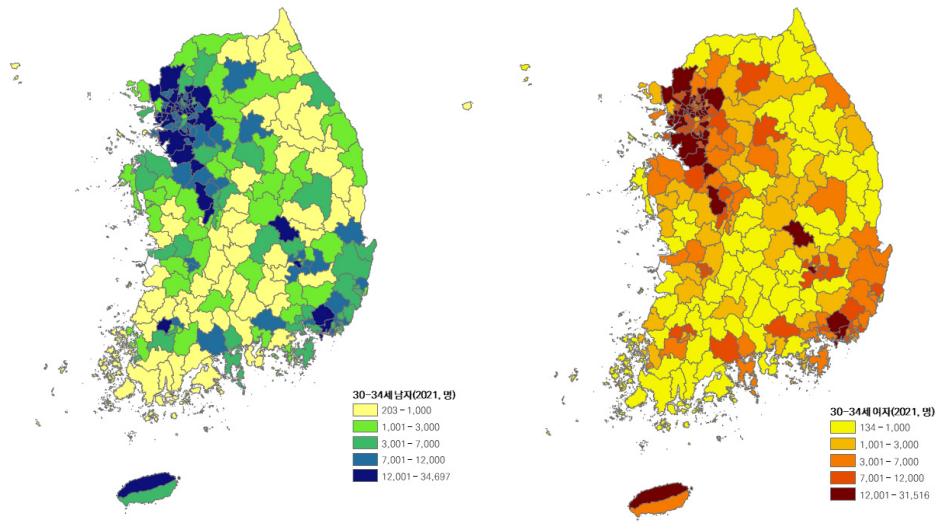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 **30-34세 청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3 참고),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 화성시에 가장 많이 거주**

- 남성의 경우 경기 화성시(34,697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기 부천시(27,513명), 서울 관악구(26,787명), 강서구(24,217명), 송파구(23,795명), 경기 평택시(22,065명), 시흥시(18,718명), 남양주시(18,398명), 인천 서구(18,153명) 등에 많이 분포
- 여성의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경기 화성시(31,516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경기 부천시(26,284명), 서울 송파구(26,139명), 강서구(24,881명), 관악구(21,454명), 강남구(18,881명), 경기 남양주시(18,416명), 인천 서구(17,807명), 서울 영등포구(17,790명) 순

[그림 3] 30-34세 남녀 인구 분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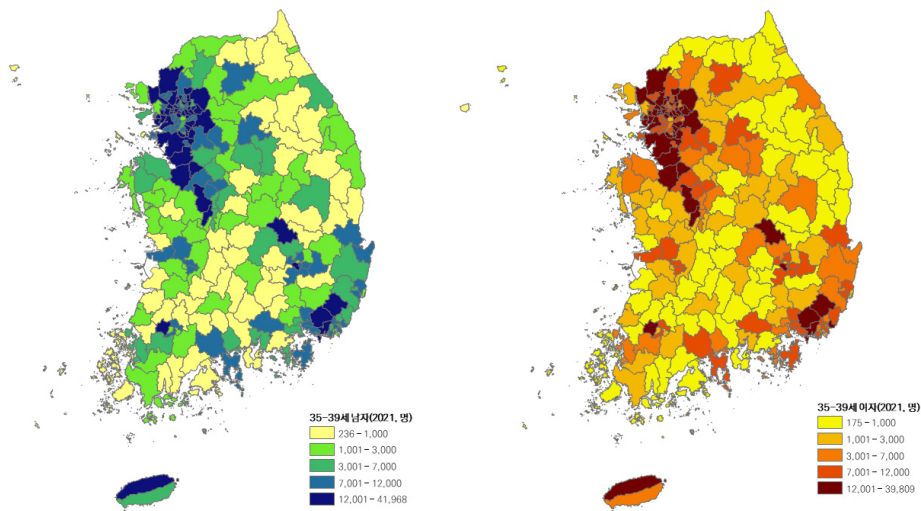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 35-39세의 청년 인구는 경기 화성시에 가장 많이 거주(그림 4 참고)

- 남성의 경우 경기 화성시(41,968명)에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경기 부천시(28,845명), 서울 송파구(24,477명), 경기 남양주시(23,905명), 서울 강서구(23,200명), 경기 평택시(23,198명), 시흥시(22,442명), 인천 서구(21,720명) 순으로 많이 거주
- 여성의 경우, 경기 화성시(39,809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부천시(27,201명), 서울 송파구(26,756명), 경기 남양주시(25,573명), 서울 강서구(22,210명), 경기 김포시(21,887명), 인천 서구(21,002명), 서울 평택시(20,119명) 순

[그림 4] 35-39세 남녀 인구 분포(202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 청년 분포와 지역 특성과의 관계

### □ 청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전체 지역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선행연구(송용창·김민곤, 2016; 오은열·문채, 2016; 이정희 외, 2017; 김리영, 2019; 박부명·김성아, 2020)를 검토하여 각 지역 내 연령별 청년의 비율, 사설학원, 재정자립도, 교원1인당 학생 수, 녹지율, 지역내총생산, 인구성장률 등의 변수를 사용(표 1 참고)하고, 시·군·구 단위 분석(N=229)
- 분석 결과(표 2 참고),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사설학원 수, 재정자립도, 교원1인당 학생수, 지역내총생산, 인구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편임을 확인
- 반면, 청년층의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녹지율이 낮은 편임을 확인
- 특히, 지역의 사설학원 수, 인구증가율은 35-39세 인구 비중과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재정자립도는 25-29세 30-34세 인구 비중과 강한 상관관계 확인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4세 인구 비중과 높은 상관성 발견

[표 1] 청년인구 비율과 지역특성 변수 개요

변수	변수설명, 단위	출처
20-24세 청년 비율	20-24세 청년/전체 인구,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25-29세 청년 비율	25-29세 청년/전체 인구,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30-34세 청년 비율	30-34세 청년/전체 인구,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35-39세 청년 비율	35-39세 청년/전체 인구,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사설학원 수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외 세외수입의 비율, %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교원1인당 학생수	1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녹지율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2021)
지역내 총생산	일정기간 해당 시군구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백만원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인구증가율	자연증가율과 사회적증가율의 합으로 전년대비 인구변화율, %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 □ 청년 인구와 지역 특성의 상관성 분석 결과(표 2) 연령별 특징 확인

-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선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
- 20-24세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달리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보다 사설학원 수 등 교육 관련 특성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취업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30대의 경우 30대 전반보다 후반에 사설학원 수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진 부모의 자녀 교육여건 고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 청년 인구 비율과 지역 특성 간 상관분석 결과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사설학원 수	0.427**	0.378**	0.411**	0.529**
재정자립도	0.353**	0.583**	0.747**	0.787**
교원1인당 학생수	0.848**	0.645**	0.617**	0.638**
녹지율	-0.311**	-0.490**	-0.427**	-0.293**
지역내총생산(GRDP)	0.311**	0.474**	0.580**	0.564**
인구증가율	0.135*	0.163*	0.322**	0.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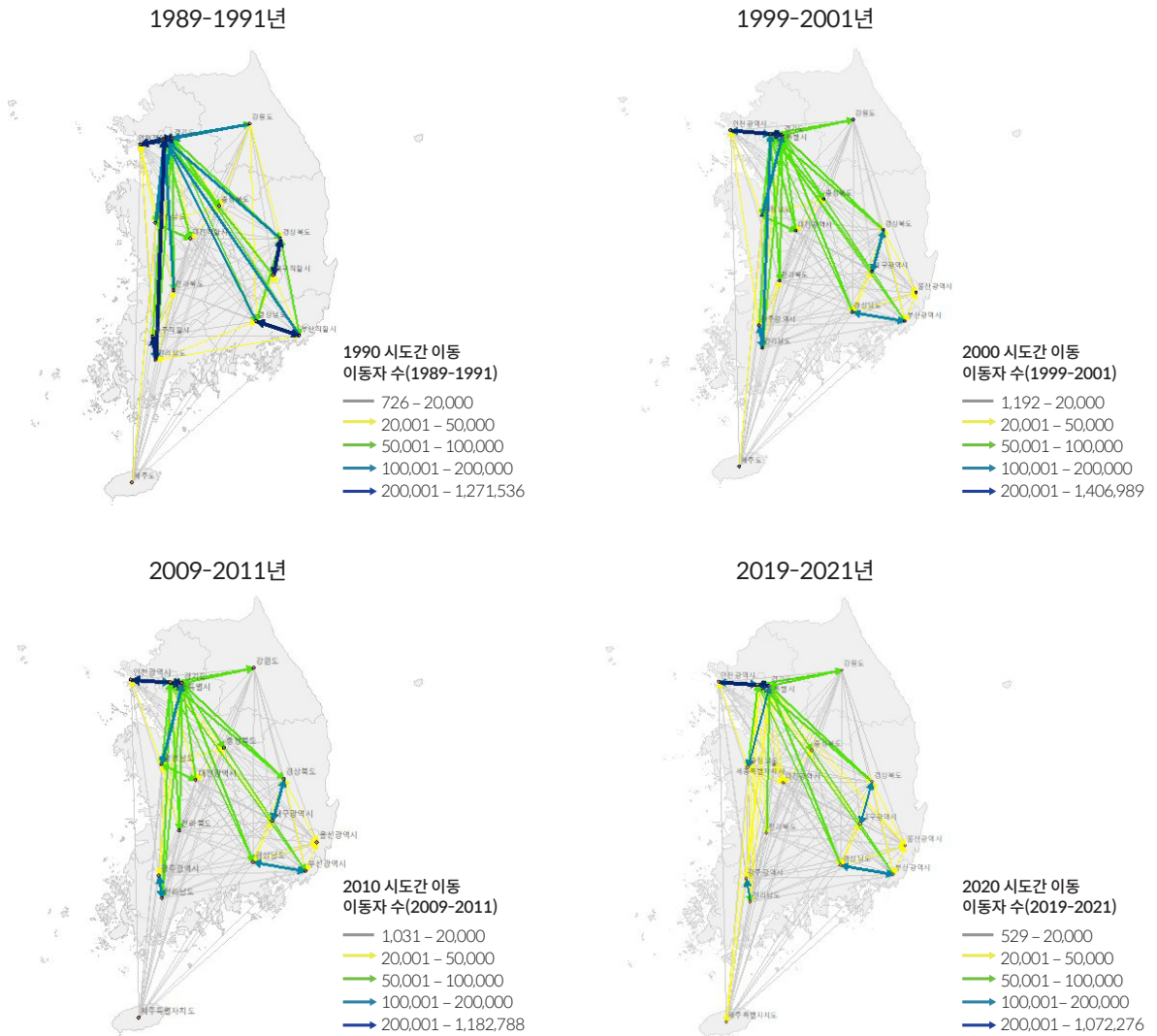
\* 상관관계가 0.05수준에서 유의,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

### III. 청년의 주거 이동 패턴

#### 시도간 전출입이동 패턴 변화 분석

- 1990년도 이후 최근까지 30여년간의 시도간 인구이동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시도간 이동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그림 5)
  -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을 기준으로 시도간 인구이동 패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각 년도 자료는 해당년도의 개발사업 등 특정한 사건이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3개년도 자료 합산
  - 먼저 1989-1991년 3개년의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출발해 경기도(1,271,536명)로 도착하는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를 출발해 서울시로(884,357명), 부산시에서 전출하여 경상남도로 전입(282,606명)하는 이동규모가 많음을 확인
  - 1999-2001년 3개년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 검토 결과, 1989-199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동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서울시에서 출발해 경기도에 도착하는 네트워크(1,406,989명)는 1989-1991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
  - 2009-2011년 3개년의 이동과 2019-2021년 3개년의 시도간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출발해 경기도에 도착하는 네트워크(2009-2011년 1,182,788명, 2019-2021년 1,072,276명)가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도간 이동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그림 5] 시도간 전출입 이동(1990-2020)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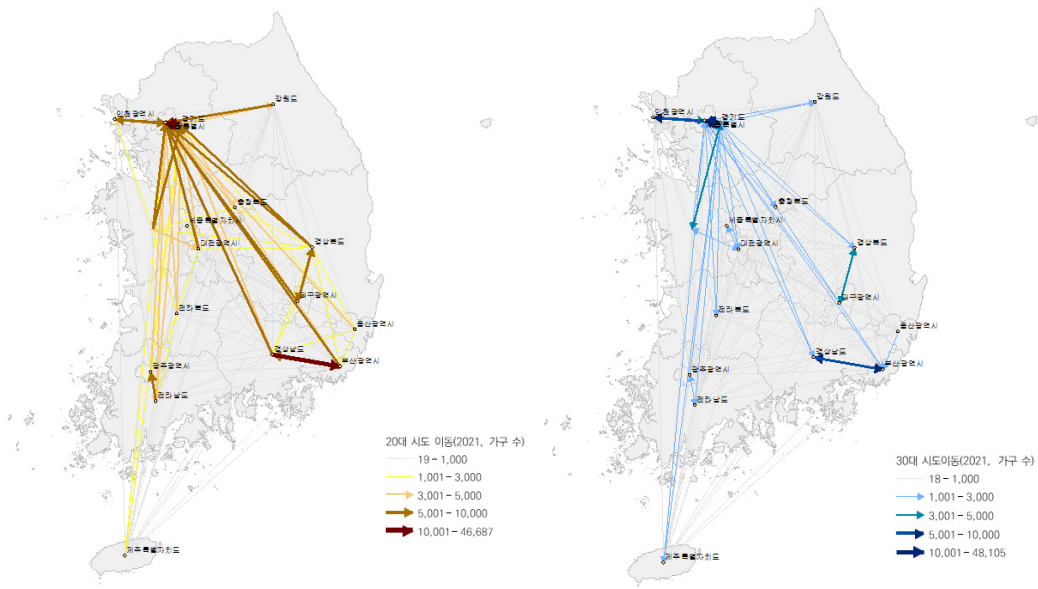
## 20대와 30대 청년 가구 이동

### □ 20대와 30대 청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대와 30대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이동 분석

-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기반하여 생산되는 자료인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서는 가구 단위로 작성하고 있어 20대와 30대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이동을 청년의 이동으로 파악
- 2021년 20대와 30대 청년 가구의 시도 간 이동을 살펴보면(그림 6), 서울시와 경기도 간 이동이 활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과 부산시 간 이동, 인천시와 경기도 간 이동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21년의 20대와 30대의 가구이동을 살펴본 결과, 20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6,687가구), 30대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48,105가구)을 확인
- 20대는 지방에서 출발해 서울로 도착하는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20대와 30대 청년 가구 이동(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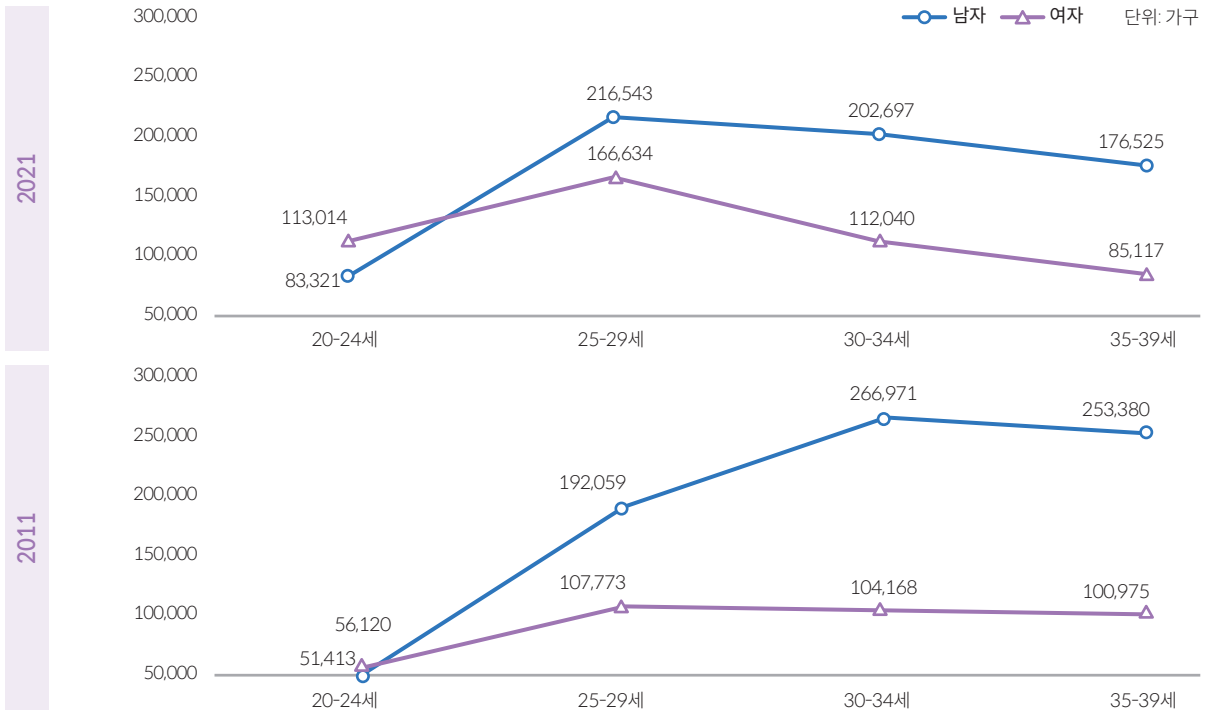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 수도권 전입 청년 인구의 변화를 최근 10년 전과 비교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그림 7), 과거에 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의 경우 청년들의 수도권 전입 시기는 남자는 30-34세, 여자는 25-29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패턴으로 판단됨
- 2021년의 청년의 수도권 전입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이동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세에 수도권에 전입하는 가구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여자 20-24세 가구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5-29세 청년 가구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

[그림 7] 수도권 전입 청년 가구이동(2011, 2021)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1, 2021)

□ 청년 가구이동의 수도권 전입(2021)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sup>2</sup>, 먼저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이동,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이동하는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24세, 25-29세의 경우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0-39세의 경우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이동하는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 연령별 청년가구의 수도권내 이동 상위 네트워크

순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서울→관악구 (2,136가구)	서울→관악구 (3,852가구)	경기→화성시 (7,593가구)	서울→관악구 (5,948가구)	경기→화성시 (7,833가구)	경기→화성시 (3,247가구)	경기→화성시 (7,197가구)	경기→화성시 (2,672가구)
2	경기→화성시 (1,745가구)	서울→강서구 (1,838가구)	서울→관악구 (6,799가구)	서울→강서구 (4,603가구)	경기→평택시 (5,374가구)	서울→강서구 (3,027가구)	경기→평택시 (4,829가구)	서울→송파구 (2,242가구)

<sup>2</sup> 본 연구는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청년 가구에 초점을 두고 청년 가구이동의 수도권으로의 전입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행정구 단위로 제공된 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전입지는 시군구까지 검토하였으며, 다만 전출 지역은 시도 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시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순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	경기→평택시 (1,630가구)	경기→화성시 (1,723가구)	경기→평택시 (5,716가구)	경기→화성시 (4,179가구)	서울→강서구 (4,213가구)	서울→송파구 (2,835가구)	경기→남양주 (3,626가구)	서울→강남구 (1,988가구)
4	서울→동대문구 (989가구)	서울→동대문구 (1,716가구)	서울→강서구 (3,632가구)	서울→송파구 (3,321가구)	서울→관악구 (4,203가구)	서울→관악구 (2,453가구)	서울→송파구 (3,600가구)	경기→평택시 (1,819가구)
5	경기→시흥시 (988가구)	서울→마포구 (1,685가구)	경기→수원시 통구 (2,908가구)	서울→영등포구 (3,167가구)	서울→송파구 (3,722가구)	서울→강남구 (2,383가구)	서울→강서구 (3,213가구)	서울→강서구 (1,786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 청년 가구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20대는 관악구로 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평택시, 화성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4세의 경우 남성은 경북에서 관악구로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267가구), 여성은 경남에서 관악구로의 이동(385가구)이 가장 많았으며, 25-29세는 남성(522가구)과 여성(319가구) 모두 부산시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30-34세, 35-39세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충남에서 평택시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에서 화성시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에서 경기도 남부(평택시, 화성시)로의 유입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표 4] 연령별 청년가구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상위 네트워크

순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경북→관악구 (267가구)	경남→관악구 (385가구)	부산→관악구 (522가구)	부산→관악구 (319가구)	충남→평택시 (517가구)	충남→평택시 (163가구)	충남→평택시 (450가구)	충남→평택시 (133가구)
2	부산→관악구 (261명)	부산→관악구 (346가구)	경남→관악구 (399가구)	경남→관악구 (242가구)	충남→화성시 (249가구)	충남→화성시 (76가구)	충남→화성시 (198가구)	충남→화성시 (43가구)
3	충남→관악구 (223명)	충남→관악구 (338가구)	경북→관악구 (316가구)	충남→평택시 (214가구)	경북→파주시 (219가구)	부산→관악구 (75가구)	경남→평택시 (167가구)	충북→평택시 (41가구)
4	전북→관악구 (202명)	경북→관악구 (332가구)	충남→관악구 (300가구)	충남→관악구 (201가구)	경남→평택시 (152가구)	부산→강남구 (65가구)	경북→파주시 (165가구)	부산→강남구 (34가구)
5	강원→관악구 (196명)	전북→관악구 (271가구)	대전→관악구 (280가구)	대구→관악구 (187가구)	충북→평택시 (134가구)	부산→강서구 (63가구)	충북→평택시 (122가구)	경남→평택시 (34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 IV. 청년의 주거 이동 사유

### 자료 수집 및 분석

- 청년가구의 주거 이동 사유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는 전입 시 작성하는 전입신고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전입신고서에 기재한 전입 사유 분석

[표 5] 전입신고서 상의 이동 사유

이동사유	전입신고서 상 사유	설명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취업, 구직과 관련하여 이사한 경우 - 직장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사한 경우 - 사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결혼, 이혼, 별거, 사별로 이사한 경우 -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우 -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전세, 월세 등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 주택규모 변경, 집세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진학, 학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지하철역 근처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 문화,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등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요양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더 나은 주거환경(신선한 공기, 오염지역 탈피)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등
기타	위의 사항 이외의 사유	- 위에 열거한 요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 2021년 기준, 청년 가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전입하는 사유에 있어 연령별 차이 발견(표 6)
  - 20-24세, 25-29세의 이동 사유는 남자와 여자 모두 직업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하여 20대의 청년 가구의 약 40% 이상이 직업을 이유로 주거 이동
  - 남자의 경우는 25-29세(48.0%)에서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중이 20-24세(41.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20-24세(45.0%)에서 25-29세(43.3%)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20-24세에서 직업 다음으로 남자는 교육(24.0%)-주택(16.7%) 순으로, 여자는 주택(19.0%)-교육(17.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30-39세의 경우 남성(30-34세 40.3%, 35-39세 50.9%)과 여성(30-34세 40.3%, 25-29세 49.8%) 모두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6] 청년 가구 수도권 전입 사유(2011,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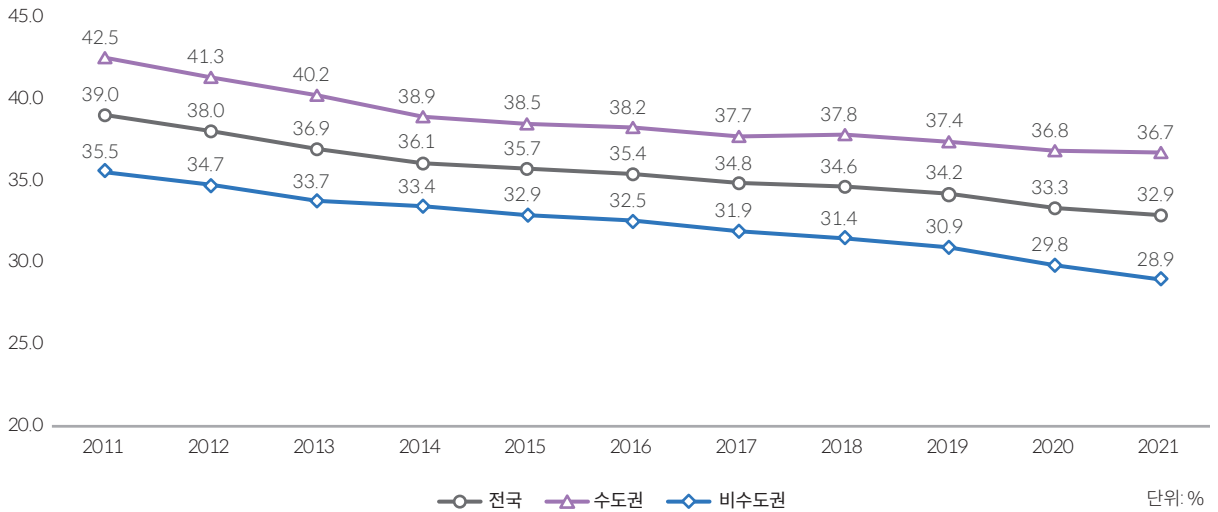
		남성				여성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21	직업	41.4	48.0	31.9	23.0	45.0	43.3	28.2	19.9
	가족	6.2	10.2	14.8	12.5	6.3	11.4	15.4	12.6
	주택	16.7	26.0	40.3	50.9	19.0	29.2	40.3	49.8
	교육	24.0	3.6	0.9	1.7	17.5	2.2	1.2	2.5
	교통	5.6	5.9	5.8	5.3	6.4	7.1	6.8	5.8
	건강	0.3	0.2	0.3	0.5	0.2	0.3	0.5	0.6
	기타	5.9	6.0	6.0	6.2	5.7	6.5	7.7	8.9
2011	직업	32.1	31.7	20.3	16.0	33.4	26.1	16.5	12.1
	가족	3.7	6.5	7.5	5.9	3.3	6.0	6.6	5.4
	주택	22.7	32.5	43.3	47.3	25.1	34.4	41.5	44.6
	교육	14.1	2.3	0.7	1.5	8.8	1.5	1.6	3.2
	교통	1.3	1.3	1.2	1.0	1.7	2.0	1.6	1.1
	건강	0.2	0.2	0.2	0.3	0.2	0.3	0.4	0.5
	기타	25.9	25.6	26.6	27.9	27.5	29.8	31.7	33.1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1, 2021) 원자료

- 10년 전인 2011년 청년 가구의 주거이동 사유(표 6)와 비교해 볼 때, 2011년에 비해 2021년 청년들의 직업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
  - 2011년의 20-24세의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중은 남자 32.1%, 여자 33.4%로 2021년의 각각 41.4%, 45.0%와 비교할 때 차이점 확인
  - 20-29세 청년들의 이동을 2011년과 2021년을 비교할 경우, 과거에 비해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중이 커지고, 주택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은 작아졌음 발견
- 위와 같은 청년층의 이동은 취업자 수 통계에서도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그림 8), 2021년 기준 전국 취업자 수 대비 청년(20-39세 기준) 취업자 수의 비율은 전국 평균 32.9% 수준으로 이는 2011년도 39.0%에 비해 6.1%p 감소한 수치임
  -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 중 청년의 비율 역시 감소하는 가운데, 2021년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청년 취업자 수 비율은 36.7%, 비수도권은 28.9% 수준으로 2011년도와 비교 시 각각 5.8%p, 6.6%p 감소하여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청년 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8] 취업자 중 청년(20-39세) 비율 변화(2011-20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

- 시도별 청년층의 취업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표 7), 경기(28.0%), 서울(22.4%), 인천(5.9%), 부산(5.7%), 경남(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취업자수 대비 청년(20-39세 기준) 취업자 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서울(전체 18.5%, 청년 22.4%), 경기(전체 26.2%, 청년 28.0%), 인천(전체 5.7%, 청년 5.9%), 대전(전체 2.9%, 청년 3.1%), 세종(전체 0.7%, 청년 0.8%) 이었음

[표 7] 시도별 청년(20-39세) 취업자수 비교(2021)

	전체 취업자수		청년층(20-39세)		청년층(20대)		청년층(30대)	
	취업자수 (천명)	비율	취업자수 (천명)	비율	취업자수 (천명)	비율	취업자수 (천명)	비율
전국	27,273	100.0%	8,963	100.0%	3,706	100.0%	5,257	100.0%
서울	5,055	18.5%	2,011	<b>22.4%</b>	868	<b>23.4%</b>	1,143	<b>21.7%</b>
부산	1,657	6.1%	510	<b>5.7%</b>	216	5.8%	294	5.6%
대구	1,217	4.5%	388	4.3%	164	4.4%	224	4.3%
인천	1,563	5.7%	532	<b>5.9%</b>	223	<b>6.0%</b>	309	<b>5.9%</b>
광주	745	2.7%	239	2.7%	101	2.7%	138	2.6%
대전	785	2.9%	278	<b>3.1%</b>	126	<b>3.4%</b>	152	<b>2.9%</b>
울산	555	2.0%	173	1.9%	62	1.7%	111	<b>2.1%</b>
세종	185	0.7%	69	<b>0.8%</b>	21	0.6%	48	<b>0.9%</b>
경기	7,150	26.2%	2,512	<b>28.0%</b>	1,008	<b>27.2%</b>	1,504	<b>28.6%</b>
강원	809	3.0%	208	2.3%	89	2.4%	119	2.3%

	전체 취업자수		청년층(20-39세)		청년층(20대)		청년층(30대)	
	취업자수 (천명)	비율	취업자수 (천명)	비율	취업자수 (천명)	비율	취업자수 (천명)	비율
충북	897	3.3%	277	3.1%	124	3.3%	153	2.9%
충남	1,193	4.4%	369	4.1%	148	4.0%	221	4.2%
전북	953	3.5%	241	2.7%	101	2.7%	140	2.7%
전남	985	3.6%	221	2.5%	86	2.3%	135	2.6%
경북	1,410	5.2%	352	3.9%	147	4.0%	205	3.9%
경남	1,732	6.4%	474	5.3%	181	4.9%	293	5.6%
제주	383	1.4%	109	1.2%	42	1.1%	67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

## V. 결론

### 청년 인구의 지역적 편재 확인

- 청년의 공간 분포 현황을 보면 20-39세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지방 대도시 일부 지역
  - 20대와 30대의 청년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과 경기(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인천(서구)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과 대전 서구,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시 등 지방 대도시 일부 지역

### 전반적으로 시도간 이동하는 전체 인구 규모는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청년 인구 이동은 비교적 활발하며 수도권 지향성 확인

-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 2020년의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1990년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이 활발한 반면 2020년에는 인접 시도간의 이동 중심으로 변화
  -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이동은 원거리 이동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청년층은 지방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인구이동이 비교적 많음
  - 특히 20대의 시도간 이동이 30대에 비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로 도착하는 이동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대는 관악구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30대는 화성시, 평택시 등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청년의 경우 관악구로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

- 비수도권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관악구로 도착하는 흐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24세 청년가구의 경우 수도권 내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모두 관악구의 진입이 가장 많았음
- 20대는 직업, 진학, 주택 등의 사유로 수도권, 특히 서울 관악구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30대는 주택과 직업으로 인해 평택시, 화성시 등 경기도 남부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sup>3</sup>

## 수도권 전입 청년인구의 2011년과 2021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집중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임

### □ 과거에 비해 20-24세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 도착하는 시기가 빨라졌음을 확인

- 전반적으로 전체인구의 이동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세에 수도권에 전입하는 가구 수는 과거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20-24세 가구의 이동이 크게 증가
- 과거에는 지역대학이 건재하면서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인구의 버팀목 역할을 한 반면, 최근 대학과 취업을 위한 20-24세 인구가 바로 수도권으로 진출해 중간의 역할을 하는 지방 도시들이 위축
- 25-29세 여성이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과거 10년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특히 청년 여성이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없는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이 대학진학과 졸업 후 취업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 후 취업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청년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임과 동시에 오늘날 당면한 지방의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

##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지역 배치는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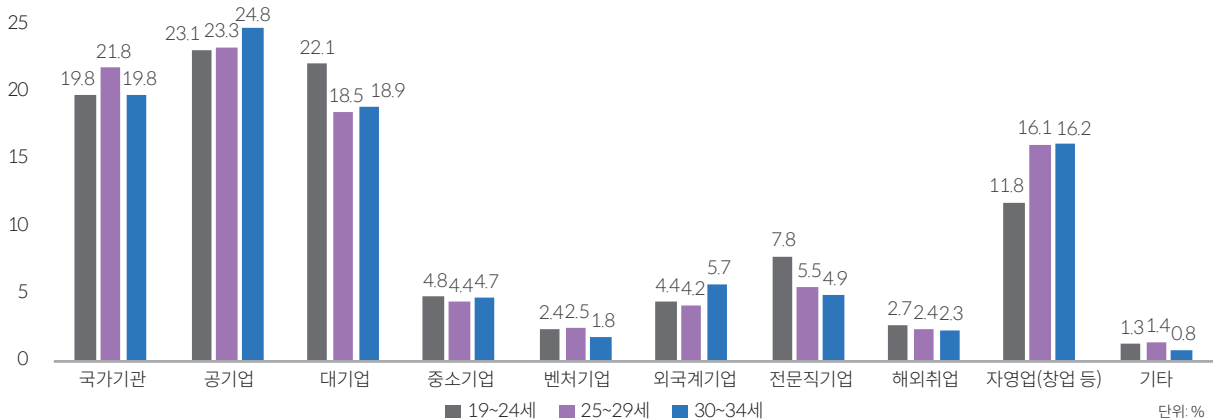
### □ 청년인구 중 수도권 이동이 가장 많은 연령집단은 25-29세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시기로 판단됨

-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그림 9) 연령별로 미세한 차이는 발견되지만 전반적으로 공기업, 정부기관, 대기업, 자영업(창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이동은 주로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이동으로 구분되는데, 대학의 소재지가 졸업자들의 취업지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청년층은 대학진학으로 수도권에 이동한 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나타냄(권오규·마강래, 2012)

<sup>3</sup> 본 연구는 주거이동의 사유를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동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이동 이유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단순히 진학이 아닌 취업과 정착까지 염두에 둔 결과라고 상정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림 9]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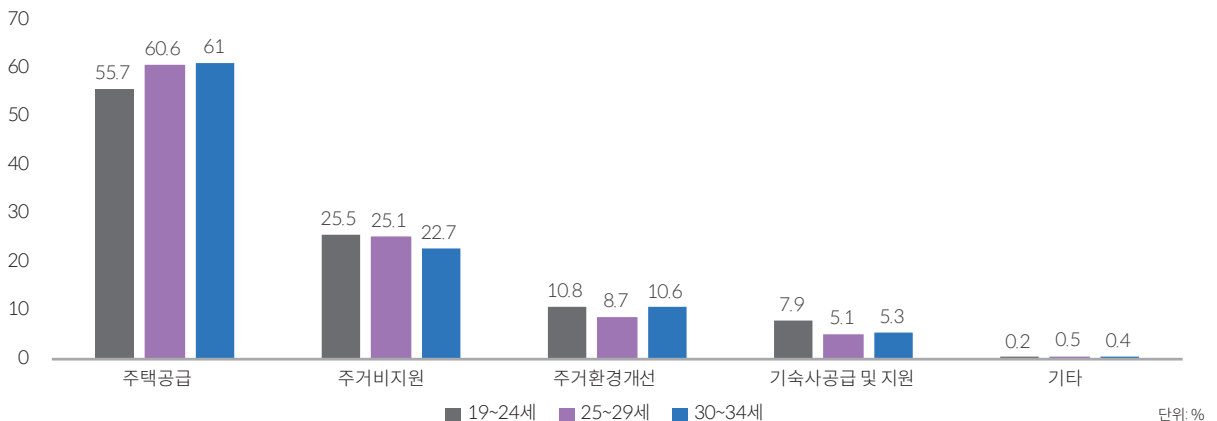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1)

##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필요

### □ 청년층의 진학, 취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원 역시 청년층에게 중요한 정책

-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그림 10), 주택공급, 주거비지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나 역세권 등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비롯한 민간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주택이나 민간임대 주택 공급 필요(김리영, 2019)

[그림 10] 가장 시급한 청년주거정책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2021)

## 참고문헌

- 권오규·마강래(2012)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연구 28(4), 65-77.
- 김기현·배정희(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리영(2019) 지역 간 특성차이가 서울시 청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35(2), 29-57.
- 김현우·강명구(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5), 49-78.
- 박부명·김성아(2020) 청년층의 인구이동과 주택정책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LHI 저널 11(1), 21-28.
- 송용찬·김민곤(2016)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3), 151-179.
- 엄창욱·노광욱·박상우(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 오은열·문채(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9(4), 67-92.
- 이정희·이창수·이상경(2017) 수도권의 도시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전입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141-150.
- 천상현·이연수·임이정·박성진(2014)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9(5), 151-172.
- Lewis,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139-191.
- Todaro, P.(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138-148.

##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외 4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8.19.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34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12.23.
35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30.
36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0.
37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1.24.
38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2.2.7.
39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2.2.21.
40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2.3.7.
4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3.21.
4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4.4.
43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2022.4.18.
44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2022.5.2.
45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5.16.
46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5.30.
47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6.13.
48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2.7.11.
49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7.25.
50	한국인의 분배 인식 :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8.8.
51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8.22.
52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2022.9.5.
53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9.19.
54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10.17.
55	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10.24.
5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10.31.
57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예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14.
5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2.11.28.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http://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